

세계질서 변화 속 한일협력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은 가능한가

동아시아연구원(EAI)

I. 세계질서 변화 속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

한일관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수출 규제 발언 이후 연이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잇따르고 그나마 한일관계를 지탱해오던 민간 교류마저 코로나로 인해 끊겨 버린지 오래다. 서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인식은 멀어져만 가고 있으며, 그를 틈타 언론 보도와 정치 지도자들의 국민 감정 선동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감정을 세세히 살펴 반일과 혐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일관계의 내면을 읽어봐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치 지도자 간의 협력을 넘어선 민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는 것과 역사 문제로부터의 디커플링 및 단계적 관계 진전 계획 수립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II. 2020년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본 한일관계의 현주소

국민 감정이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한다?

-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 호감도를 견인해 오다시피 한 2030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국민 감정의 저력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고 조장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혹 정치 지도자 또는 정부 간 대립이 한일 양국 청년 세대들의 신(新)시대 도래를 저지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원론적 입장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타협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 구도 야스시(工藤泰志) 켄론NPO대표는 민의를 살피는 기준으로 국민 간 교류, 즉 여행과 사적 교류 등으로 대표되는 ‘민간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꼽는다. 언론을 포함한 간접 정보 매체만으로는 상대국의 실상을 알고 이해하기 부족한 상황이라 평가하고, 간접 매체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때문에 상대국의 문화,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는 민간 차원의 직접적인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한일관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만큼 민간교류가 강력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구 없는 국수주의적 사고, 그리고 민간 교류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한 코로나 사태를 경계한다.

-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는 민심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본을 향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느 분야에서나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이성적 대응과 감정적 대응의 괴리’라고 표현한다. 한국에게 일본은 산업과 무역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높은 파트너인 반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거나 안보 이익을 함께 누리는 상대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한 비록 한일관계가 좋을지라도 역사 문제가 언제든지 남아 있을 거라는 주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폐 사관이 아닌 성취사관에 근거해 일본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일관계 호전을 위해 노력 해주길 촉구한다.
-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또한 민간 차원의 상징적 교류의 필요성을 드높이고선, 정재정 교수의 ‘이성적 대응과 감정적 대응의 괴리’에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인다. 괴리가 있다는 것은 양국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국에 ‘민감도가 높은 나라’로 줄곧 인식되던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섞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경제력을 견줄 만한 사이가 되었으니 보다 더 동등한 입장에서 우호국가라는 인식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인다. 정부 간 관계는 최악일지 몰라도 민간 차원의 한일 관계에는 아직 회생의 기미가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국민을 너무 일체화시키지 못하도록 한일 관계를 민간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 보길 권고한다.
- 이에 김현기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가능성이 적은 최선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차선을 택하는 현실책’을 선보이자고 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물밑대화를 통해 사전 입법적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다. 한국의 1965년 청구권 협정 존중과 일본의 처절한 역사 반성,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해제와 지소미아를 둘러싼 논의 활성화, 그리고 이 모든 이슈들이 끝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로 향하게끔 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피력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21년이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정상이 지진 참사 지역을 방문해 양국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그림을 상상해 보자고 한다.
- 오키조노 히데키(奥薊秀樹) 시즈오카현립대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준교수는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의 이유로 한국인들만이 민감히 반응하던 한일관계에 일본인들까지도 민감히 반응하게 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한일 양국의 특수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군사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인들에게는 마치 일본의 경제력 지배처럼 간주되었을 거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인들의 반발심과 감정적 대응을 진단한다. 그러나 수출 규제로 관계 악화의 일로를 걷는 양국을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며 양국 모두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 하락이 한일 관계 경시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민 감정을 통해 바라본 한일관계는 비단 무역과 산업 경쟁과 안보 전략 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한일 청년세대의 키워드에 주목해야: 반 끈대 감정,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 리터러시

- 권용석 히토츠바시대학 부교수는 한국의 청년세대들의 대일호감도 하락을 ‘끈대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들며 설명한다. 한국 청년들에게는 선진국 한국이라는 자의식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시선을 거부하게 하며 한일전이라는 경쟁의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게 한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한 일본의 못미더운 코로나 대응책과 영화 <기생충>과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는 BTS를 접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선진국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평가한다. 끊임없이 미디어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청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짐은 이런 맥락에서다.
- 조형진 초록뚰미디어 대표이사는 문화 콘텐츠가 국민 감정을 오롯이 지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해도 상승과 대화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는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얼어 붙은 한일 관계의 윤희제 역할로 드라마 공동 제작이나 끊임없는 문화 콘텐츠 교류를 제시한다.

II.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일 양국의 과제 및 향후 전망

‘전략적 이익’이라는 이름의 한 배를 탄 한국과 일본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중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양국 간 대 중국 인식에 온도차가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중 대립이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는다. 아베 총리와 스가 총리는 비슷하지만서도 다르다면서 중국과는 다른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미중 대립으로 전략적 이익까지 따져가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한다.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길 제안한다. 안보나 전략 측면에서 한일 모두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한일 관계 담론에서 해당 측면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 국민들이 강제 징용 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해당 사안에 관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 또한 조 의원의 전략적 차원에서 본 한일관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관 그리고 이념을 공유하는 사이인 만큼 비록 양국이 중국에 대한 온도 차를 보인다 하더라도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트럼프가 거칠게 펼쳐 온 미국 우선주의에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했다라면 윈윈의 기회를 거머쥐었을 지도 모른다면 아쉬움을 표한다. 단,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은 다름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라는 점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공유하며 협력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한국, 신 안보협력 체제 쿼드(Quad)에 참여할까?

-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 주목한다. 한미일 3국이 함께 핵무기를 둘러싼 북한의 고집을 경계하면서 비핵화의 입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미중 경쟁 심화 속 한국의 쿼드(Quad) 합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 이에 오쿠조노 히데키 준교수는 쿼드의 취지가 중국의 폭주를 막는데 있다면서 쿼드를 둘러싼 오해는 접어 두길 촉구한다. 더 나아가 한국이 매번 정권마다 그리고 이슈마다 안보 입장이나 전략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일본은 매우 불안감을 느낀다며 한국이 보다 일관성 있는 안보 전략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고 제언한다.

역사 문제로부터의 디커플링과 반보 전진을 위한 단계적 접근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악화된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선악과 정의론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대결적 담론의 반복을 지양할 것을 충고한다.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적 휴전 상태와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12월 9일 이후 압류화 해 놓은 일본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 된다면 한일관계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경고한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극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반보 전진에 그치더라도 조금씩 협상의 논의들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100% 완승보다는 51%의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시작점이라고 밝힌다. 그를 위해 우선은 역사가 한일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대전제 하에 역사에 모든 사안들을 커플링 시키는 작업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한일 이슈들 간 디커플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류의 물꼬를 국민들의 여행 허가나 양국 간 콘텐츠 교류로 틀 수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도 내비친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간 정치 분쟁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문화, 스포츠 기타 분야로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초래한 주역으로 정치인들을 꼽는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과 책임 추궁의 악순환을 반복함에 따라 오히려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며 정치계에 경종을 울린다. 또한 역사로부터의 디커플링과 관련하여 문의상 의장의 포용론적 화해 방식을 소개한다. 포용론적 화해 방식에 따르면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한편, 일본은 한국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수 있다. 또한 해당 방식은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에만 주도적 할을 주는 것이 아닌 관련 일본 기업, 참여 의사를 밝힌 개인들을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독일 베를린의 평화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예시로 들면서 똑같은 가해자 입장에서 독일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보려는 일본에게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을 언급한다.
-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일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기초적 관계 회복을 우선 목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관계 회복은 장기 과제로 본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합의를 무리하게 추진하

지 말기를 간청한다. 반일이나 혐한의 극단적인 감정을 정치에 동원하지 말아 주기를 당부함과 동시에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상징적 교류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추측과 함께 이전 김대중 대통령의 98년 오부치 선언의 기록을 공동 복원하거나 극장용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관계 개선의 윤희유 역할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상회의 개최 없이 2021년을 맞이할 경우, 양국의 각종 선거들(예: 서울 시장 선거, 부산 시장 선거, 중의원 총재 선거, 자민당 선거 등)에서 또 다시 한일 관계가 정치 선동의 피해를 입는지도 모른다면, 한일 관계 회복의 시급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

III. 한일 청년 대화

지극히 사적이고도 문화적인, 청년들의 한일관계

- 한국 측 청년 대표들은 한일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 혹은 역사 분쟁의 관계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들 사이에서 ‘일본은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라는 논리는 서서히 떨어져 가고 있다. 그들에게 한일관계는 친구와의 교류이자 문화 콘텐츠의 소비 통로이며 자기 정체성과 성취를 드러내는 무대 혹은 채널과도 같다.
- 일본 측 청년 대표들에게도 한일관계는 여행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사적인 교류를 의미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들어 일본 청년들의 한국 음악과 드라마 콘텐츠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혹 위안부 문제 등에 한국 청년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이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반발심일 뿐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암기 위주의 대학 입시 교육 체제와 마이너스적인 역사교육이 청년들 간의 감정적 교류를 어지럽힌다는 생각이 든다. ■

IV. 발표자 약력 (한국, 일본 측 순. 가나다 순)

■ 김현기(金玄基)_ 중앙일보 편집국장. 연세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및 일본 게이오대 박사.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부 기자, 중앙일보 편집국 경제부 기자, 중앙일보 편집부 국제부 기자, 중앙일보 도쿄 총국장, 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장,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중앙일보 편집국장.

■ 남기정(南基正)_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동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도쿄대학 대학원 국제관계론 박사.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조교수(전),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전),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전),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전),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전),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객원교수(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현). <정치 기획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유령 잡기에 도전함>(2020), <한일 1965년 체제 종식의 길>(2019), <평화를 화해에 연결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관계>(2019),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2016) 등을 저술함.

■ 노웅래(盧雄來)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대 학사, 동국대 석사. 제 17·19·20·21 대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4 선). (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환노위원·정보위원, 디지털뉴딜라운드 공동수석의장, 국회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 공동의장, 민주화추진협의회 자문위원, 20 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전).

■ 박영준(朴榮濬)_국방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경대학교 총합문화연구과 국제정치학 박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한국평화학회 회장(전), 현대일본학회 회장(전). 미국 하버드대 방문학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선데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칼럼 게재.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2020),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2016, 공저), <비교군사전략론>(2014, 공저), <해군의 탄생과 근대일본>(2014) 등 저술.

■ 박원곤(朴元坤)_한동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사업과, 사우스웨스트배пти스트 대학교 정치학 학사, 보스턴칼리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전),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교수(현),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한국협의회 사무처장(현), 한동대학교 그레이스 스쿨 부원장(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현), YTN <더 뉴스>의 “더 넓은 세상” 고정 출연(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남북미 군비통제연구>(2020), <북한의 6 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2020) 등 저술.

■ 박철희(朴喆熙)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학연구소 소장. 콜럼비아대학교 정치학박사, 일본 정책연구대학원(GRIPS) 및 외교안보연구소(IFANS) 조교수, 콜럼비아대학교, 동경대학교, 게이오대학교,

고베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서울국제포럼과 한일포럼 대표간사, 도쿄신문,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고. 2005년 한일 간 학술활동 및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제 1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

■ 서의동(徐義東)_경향신문 논설위원.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사. 경향신문 경제부 차장, 경향신문 도쿄 특파원. 동문사 경제부장, 선임기자,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손 열(孫冽)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중앙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2012)을 지냈다. Fu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아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 (2017, 공편) 등이 있다.

■ 정재정(鄭在貞)_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학사, 도쿄대학 한국사학 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현),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관장(전), 시민대학 학장(전), 인문대학 및 대학원 학장(전), 북해도대학 특임교수(전), 동경대학 특임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전),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전), 독립기념관 위원(전), 서울역사박물관 위원(전), 한성백제박물관 위원(전), 한일미래포럼 운영자문위원장(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장(전),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2014), <한일회담·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2015), <철도와 근대 서울>(2018) 등 저술.

■ 조형진(趙亨眞)_초록뱀미디어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사, 한양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 석사,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현) 초록뱀미디어 대표이사, 히말라야캐피탈 시니어 애널리스트, 삼성자산운용 글로벌투자팀 포트폴리오 매니저, 네이버 e-Biz 본부 전략기획 대리.

■ 조태용(趙太庸)_국민의힘 위원. 서울대학교 정치학사,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외교관 과정 수료. 주 UN 대한민국대표부 2등서기관(전), 주이라크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전),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등서기관(전), 외무부 북미 2과 과장(전), 외교통상부 북미 1과 과장(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전), 외교통상부 북미국 제 2 심의관(전), 대통령비서실(전),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단장(전),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전), 외교통상부 장관특별보좌관(전), 제 8대 주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제 1 차관 의전장(전), 제 17대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외교부 제 1 차관(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제 1 차장,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연구책임의원, 제 21 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제 21 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의원, 제 21 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고다 요지(香田洋二)**_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 1972 년 방위대 졸업 후 해상자위대에 입대. 해상에서는 호위함, 육상에서는 해상막료감부방위부 중심으로 근무. 호위함 <사와유키> 함장, 제 3 호위대군사령, 호위함대 사령관, 해막 방위부장, 통합막료각부 사무국장, 사세보 지역총괄 등을 역임. 2008 년 자위함대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퇴역. 2009~2011 년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에서 중국해양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 **구도 야스시(工藤泰志)**_겐론 NPO 대표. 요코하마시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세계싱크탱크회의 일본대표, 겐론 NPO 대표(현), 동양 경제 신문사 <금융 비즈니스>, <논쟁 동양 경제> 편집장(전). 2001 년 겐론 NPO 설립. 2005 년 중국과 <도쿄 - 베이징 포럼>, 2013 년 한국과 <한일 미래 대화>, 2012 년 미국 외교 협회가 창설한 세계 20 개국의 싱크탱크 네트워크, Council of Councils(CoC) 멤버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선출, 2016 년 세계가 직면한 지구차원의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국내 논의 형성 협의 체인 <World Agenda Council>, 세계 10 개국 싱크탱크와 자유질서와 민주주의 미래 논의하는 <도쿄회의>, 동남아 각국의 지식인이 과제 공유하고 해결책 제안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지지하며 과제 해결에 나서는 <아시아 언론인 회의> 창설.

■ **권용석(權容奭)**_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 부교수. 히토츠바시 대학 법학부 학사.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석·박사. 히토츠바시대 법학연구과 부교수. 한일관계의 정치·외교·역사 및 서브컬처, 스포츠, 문화 연구. 서울대 방문교수(전),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초빙연구원(전), <일본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 위원(전). <기시 정권 기의 아시아 외교: 대미 자주와 아시아주의의 역설>, <한류와 일류: 문화로 풀어보는 한일신시대> 등 저술.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 상/하 (이덕일 저술)> 번역.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문재인 자서전>(이와나미서점, 2018) 중 <운명에 이끌린 촛불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위상> 해설논문 집필. <NEWSWEEK JAPAN> 칼럼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 전개.

■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_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조치대학 대학원 박사 전기 과정 수료, 미시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과정 수료.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조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조수(전),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연구원(전), 게이오대학 법학부 조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전),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 센터장(전). <안전보장을 다시 묻는다>,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저술.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_게이오대학 명예교수.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박사. 일한 포럼 일본측 좌장 및 일본 방위 학회 부회장. 전문은 국제정치론 및 남북한정치론.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원 박사과정 교환. 하와이대학 조선연구센터 및 조지 워싱턴대학 중소연구소 객원연구원(1981-82 년). 법대 조교수, 교수(1985 년). 게이오기주쿠 대학 지역 연구 센터 소장, 법학부장을 역임. 한일공동연구포럼 일본측 좌장(전), 제 1 차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일본측 간사(전),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 일본측 위원장(전) 등을 지냄. 규슈대학 특임교수(2011~2014 년).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1986 년), <조선분단의 기원-통일과 독립의 상극>(2018 년), <포스트 냉전의 한반도>(편저) 등을 저술함.

■ 오쿠조노 히데키(奥薊秀樹)_시즈오카현립대학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준교수, 현대한국 조선연구 센터 부센터장.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과정 수료, 히로시마대학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규슈대학원 비교사회문화연구과 박사후기과정 학점취득. 현 시즈오카현립대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준교수 (현대한국정치외교 및 조선반도지역연구 전문). 한국 동서대학 국제학부 조교수(전). 한국 영화회사 근무 당시 임권택 감독팀원으로 영화제작 참여. NHK 기자(전), 아사히 신문 기자(전). <한일”65년체제”를 흔드는 “징용공”판결>, <박근혜대통령탄핵·면제의 배경과 한국정치>, <노무현정권과 한미동맹의 재편>, <박정희의 네셔널리즘과 대미의존> 저술.

■ 담당 및 편집: 이은지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7) ejlee@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21일

세계질서 변화 속 한일협력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은 가능한가 979-11-6617-032-4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